

# 귀가여성 살해 피의자 3일간 범행 대상 골라

### 강도 살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10일 구속 송치 여성 BJ에 '사이버 머니' 선물하다 수천만원 빛 저 공원·오일장 배회 범행 표적 물색... 시신 은닉 시도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일을 마친 후 귀가하던 여성을 살해한 범인은 범행 3일 전부터 밤낮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인이 범행 장소를 다시 찾아 시신을 은닉하려 한 정황과 평소 인터넷 방송BJ에게 사이버 머니를 선물하며 돈을 탕진했던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0일 강도 살해, 시신 은닉 미수, 신용카드 부정 사용 혐의 등으로 A(29·제주시)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0분쯤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B(39·여)씨를 살해하고 현금과 신용카드, 휴대폰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 살해)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3일 전인 지난달 28일부터 강도 행각을 계획했다. A씨는 거주하던 오피스텔의 열쇠가 몇달 간 밀리자 이날 집에서 흥기를 갖고 도망쳐 나와 사건 당일까지 자신이 소유한 트럭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밤낮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하던 택배 일을 그만둔 상태였다.

A씨는 취객이나 여성 등 범칙에 취약한 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 3일간 제주 시내 공원과 오일장 등을 밤낮으로 배회하던 A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걸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차를 세워 다가오길 기다렸다가 흥기를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하던 피해자가 도로 옆 밭으로 넘어지자 흥기를 6차례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택배 일을 그만둔 뒤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씨가 자신 명의의 차를 가지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계속된 생활고가 아닌 당장 쓸 돈이 필요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여러 명의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에게 사이버 머니를 선물하다



지난달 30일 제주시 도두1동 오일장 인근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10일 제주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모아둔 돈을 탕진했다. A씨는 환심을 사려 평소 여성 BJ들에게 최소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선물했으며 올해 초에는 한 여성 BJ와 실제 만남을 갖기도 했다. A씨는 차량 구입 대출금과 생활비, 사이버 머니 비용 등으로 5500만원의 빚을 졌다.

A씨가 시신 은닉을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한 결과 A씨는 범행 5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0시17분쯤 범행 장소를 다시 찾아 시신을 5

m가량 옮기다 포기하고 현장을 벗어났다. 또 A씨는 흥진 피해자 신용카드도 편의점과 마트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식·음료를 샀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인명 경시에 의한 미리 계획된 흉악범죄"라며 피의자를 송치한 뒤에도 여의가 없는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리 범행을 예방하지 못해 유가족에게 죄송스럽다"면서 "CC(폐쇄회로)TV 등 범행 증거물품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 제주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500원

### 올해 보다 1.5% 인상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1만 15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세수여건 악화와 코로나19 국면의 긴축 재정 상황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430원(16.4%) 많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인 1만원보다 1.5% 인상된 것이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이달 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하고 2021년 1월 1

###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되는 제도다.

제주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공 부문(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과 준공공부문(민간위탁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한편 월회급 지급은 2017년 10월 생활임금 도입 당시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제주에서 실현하겠다"며 당시 최저임금의 130% 수준인 시급 8420원을 정한 바 있다. 이태윤기자

# 현직 경찰관 숨진 사고차량 운전자 '음주'

제주에 여행을 온 현직 경찰관이 교통사고로 숨질 당시 차를 몰았던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49)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3분쯤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 인근 5·16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

를 몰다 도로 옆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보다 높은 0.08% 이상이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있던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경정 B(50)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상민기자 hasm@halla.com



10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를 천명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교육공무직 제주지부 주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10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돌봄교실을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최근 교육부 장관이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4일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필수적 교육서비스인 학교 돌봄의 기능이 부정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돌봄교실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학부모에게 물어본다면 제주도청이 아닌 교육청과 학교라고 답할 것”이라며 “교육을 잘 모르고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 지자체가 돌봄교실을 맡는다면 돌봄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교실 운영 주체 문제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는 사이 질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실종됐다”며 “돌봄전담사들은 하루 5시간 단시간 계약에 행정업무, 청소까지 병행하는 처지다.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10월 말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송은범기자

# 제주 50번째 확진자 나와... 게스트하우스發

### 자가격리 중 확진... 5명으로 49번째 확진자 동선도 공개

서귀포시 남원읍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후 10시 30분쯤 제주 50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 50번째 확진자 A씨는 제주 36번째 확진자(루프탑정원 운영자, 8월 27일 확진 판정)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7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다.

A씨는 자가격리 첫날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재검사를 통해 13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격리해제를 앞두고 별다른 증상은 없었으나 게스트하우스발 집단 감염 상황을 고

려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도 방역당국은 확진 판정을 통보받기 전까지 자가격리를 유지했다고 밝힘에 따라 확진자와 관련해 접촉자 및 이동 동선은 없었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에서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발 확진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다. 제주와 별도로 다른 지역에서도 게스트하우스 방문 이력이 있는 확진자가 서울 강동구(1명) 및 은평구(1명), 경기 용인시(2명), 울산시(2명) 등에서 나타났다. 또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했던 외교부 소속 사무관 1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는 이와함께 지난 8일 미국에서 입도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내 49번째 확진자 B씨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B씨는 지난 8일 미국에서 입국해

같은날 입도한 후 제주국제공항 위크루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체를 채취한 뒤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다.

10일 기준 도 역학조사 결과 B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 10분쯤 김포발 제주행 대한항공 KE1235편을 이용해 가족 1명과 오후 2시 30분쯤 입도했다. B씨는 공항 위크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 방역차량을 이용해 자택으로 이동했고 자가격리 중 9일 오후 1시 30분쯤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 접촉자는 입도 시 이용한 항공기 탑승객 4명과 가족 1명 등 총 5명이다. 동행한 가족 1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도 방역당국은 항공기 승객 4명에 대한 신원파악 후 B씨의 접촉자로 분류해 자가격리 조치를 완료했다.

이태윤기자 ty9456@halla.com

# “특위, 지역 편 가르기 멈춰라” 성산읍청년희망포럼 촉구

성산읍청년희망포럼(공동의장 곽창권)은 10일 제주도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회 갈등해소특위는 도의원의 권력을 남발해 제주를 동부와 서부로 나누는 지역 편 가르기를 하지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의회 갈등해소특위 일부위원의 기만적이고 지역이기주의적 발언에 대해 규탄한다”며 “도의회가 자기 지역구의 편향적인 발전에만 정치적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성산읍청년희망포럼은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는 갈등해소를 위해 성산을 주민들의 의견은 청취하지도 않고, 제주도민에게 주민투표를 거론하고 있다”며 “주민투표를 거론하기 전에 성산읍민에게 먼저 주민투표를 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태윤기자

**그랜드 보청기**

2020년 9월 장애인보청기가격고시제 시행안내  
\* 전장애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무 대행 해드립니다.\*

- 제품군1 - 70만원 이하 (40개 제품)
- 제품군2 - 70만원 초과 ~ 90만원 (105개 제품)
- 제품군3 - 90만원 초과 ~ 111만원 (125개 제품)
- 제품군4 - 111만원 초과 (37개 제품)

※ 제품군에 속하는 보청기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샵출들 혼자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세계최초 인공지능 총전식 귓속형 보청기**  
430만 → 150만! 860만 → 270만!  
◁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

**비총전식 보청기 6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 · Q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라일보 서사라 사거리 동쪽 100m 행복방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 소리와목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점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청 CGV 광양사거리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육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심의회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 한국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마을 ● 국제보청기(국제기계점)  
한라체육관 ● 시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요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윈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 체라운 - 산함량 및 당도가 높으며 향기가 진한 레몬 (국내산 레몬)
- 하레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탐나는봉 - 당함량이 높고 산함량도 높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 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실생 궁천, 흥진, 남진해, 신애감, 탐나는봉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늘,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논, 탕자모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보호 및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정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64-782-2479 / 010-4736-2479**